

국문학 연구의 이념적 반성과 학문 제도의 갱신 노력

[서평] 정기인(2020),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 한문맥의 재구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385쪽.

김진균*

인문학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국문학도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국문학의 외연과 내포는 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19세기말부터 백여 년에 걸친 시간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구성물이다. 그 시간 동안 전개된 현실 대응의 결과물들이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있다는 뜻이다. 근대계몽기의 당면 과제였던 근대민족국가 수립의 열망과 좌절, 식민지시기의 당면 과제였던 민족독립의 열망과 지연, 해방과 전쟁 후 빈곤탈피의 열망과 노력, 산업화시대의 선진국추격의 열망과 성취 등에 대한 현실 대응의 결과물이 국문학의 연구 안에 지층을 쌓고 있다. 국문학 연구에 근대 경험이 가장 깊게 남긴 흔적은 민족과 근대의 개념이다. 국문학 연구는 처음부터 민족과 근대 개념이 내포의 핵심을 이루며 형성되어 차차 외연이 확장되어온 형국이다. 지금 민족과 근대의 개념을 적출하고 나면 국문학 연구는 골간이 거의 남지 않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강사

을지도 모른다.

학문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 방식이다.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중요한 기반이긴 하지만, 그 사실의 구체적 나열만으로는 학문에 미달하고, 일정한 추상화 단계를 거쳐 세계를 이해하는 맥락을 구성해야 학문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맥락을 구성하는 이해 방식을 우리는 스토리라고 부른다. 인문학으로 분류되는 학문 영역에서는 더욱 그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인문학이야말로 팩트의 학문이기보다 스토리의 학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무늬로서의 인문(人文)을 하늘의 무늬로서의 천문(天文)의 대응물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이다. 단일한 세계로서의 천하(天下)와 우주(宇宙)라는 개념도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이다. 이런 거대한 스토리들이 붕괴되지 않도록 붙들 어두는 골간을 보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 중세의 보편 개념으로는 도(道)와 이(理) 등을 거론할 수 있겠다. 보편 개념에 대한 신념이 보편주의이다. 하나의 세계를 상정하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해보려는 보편주의는 동서고금의 학문에서 없었던 적이 없다.

국문학도 그러하다. 국문학에서 개별 작가론과 작품론들은 모두 문학사적 인식에 기반한 전후 맥락을 염두에 두고 서술된다. 문학사적 인식이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이다. 국문학의 문학사적 인식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민족과 근대를 20세기 국문학 연구의 보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학 연구에서 민족과 근대라는 개념은 현실 대응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민족과 근대의 가치는 그러나 21세기의 초입을 전후하여 상당한 의심에 직면하였다. 전근대적 천하 우주 관념 속의 도와 이 등이 근대계몽기의 출발부터 그 가치를 의심받고 보편의 자격을 잃어갔던 상황과 비교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세적 천하 질서를 근대적 세계 질서가 대체하고, 도와 이를 만국공범이나 적자생존이 대체하던 근대계몽기와는 달리, 지금 국문학에서는 민

족과 근대를 대체할 만한 다른 보편 개념이 부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민족과 근대라는 총체성에 균열을 내는 파편화의 의지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총체성은 의심에 둘러싸여 도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지금 국문학 연구에서 하나의 세계에 대한 과거의 상상력은 힘을 잃고 있고, 새로운 상상력은 대두하지 않았으며, 상상력 사이의 각축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국문학 연구 성과물은 날로 쌓여가고 있다. 보편에 대한 상상을 소홀히 하는 연구가 지속되는 이상황이 과연 긍정적인가, 하나의 세계에 대한 상상 노력 없이 학문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연구자들이 현실 대응이라는 가장 중요한 지점을 외면하고 학문 연구의 현실 대응 윤리를 잊고 있는 사이에, 하나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유실된 것은 아닐까.

20세기 중후반 대학의 제도로서 정착한 국문학 연구 분과는 우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크게 구분된다. 국문학이라는 연구 범주 자체가 근대 학술 운동의 구성물이거니와, 국문학 내부의 분과도 근대 학술 운동 전개 과정에서 제기된 필요에 의해 재배치된 셈인데, 근대라는 날카로운 이념이 본디 애매하게 겹쳐지던 영역을 무 자르듯 둘로 갈라놓았던 것이다. 식민지시기 조선적 근대의 결핍감에 신음하던 임화가 근대문학사는 이식문학의 역사라고 선언하면서 국문학을 당시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에 있는 현대문학과 이미 생명력을 잃고 박제된 고전문학으로 나누어 볼 명석을 깔아놓았고, 20세기 중후반 임화를 겨냥한 조동일이 식민지적 근대화 때문에 주체적 근대화가 위축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진통을 감수하자고 주장하면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분기점은 이념적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민족과 근대라는 이념의 예리한 칼날이 선명하게 분과를 나누어준 덕분에, 국문학 분야 연구자들 내부에서 고전문학 연구자와 현대문학 연구자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현상도 수반되었다. 당초 대학원에

서부터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별개의 학문처럼 별도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분과가 공고화되어가던 20세기 중후반부터 겪어온 근대문학 기점 논쟁이라든가, 리얼리즘 출현 논쟁, 소설 발생 논쟁들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분과 구별에 균열을 내는 일이기도 하였다. 근대문학의 지표를 민족의 고전에서 발견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민족과 근대라는 이념이 육신을 얻는 과정으로서의 논쟁들이 민족과 근대라는 이념이 만들어낸 제도와 엇박자를 빚고 있었던 것이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라는 제도는 식민지시기라는 근대의 시간에 산출된 한문학이라는 전근대 유물들을 평가할 만한 적당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조선왕조는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국가 공식 언어의 근본을 한문에서 국문으로 바꿀 것을 선포했지만, 법률과 칙령 등은 모두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덧붙이거나 한문을 혼용한다고 하는 갑오개혁의 문자에 관한 고종의 칙령조차도 『일성록』에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漢文”이라고 한문으로 남아 있다. 일반 지식인의 문자 생활의 중심축이 한문에서 국문으로 바뀌기까지는 더욱 지체되었다. 식민지시기까지도 전통적 한문 교육을 경유하지 않은 지식인은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한문학 작품들은 전근대시기의 작품에 비해 지나치게 홀대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시기 신문 잡지 등의 각종 연속간행매체의 현상모집에는 다양한 문예 작품 장르 사이에 한시가 배치되어 있으며, 한문학 작품이 번역 없이 직접 게재되어 있기도 하다. 『식민지시기한시자료집』(이희복 외 편,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에는 2만 수에 육박하는 이 시기 창작 한시를 수록하였다. 사회학적 의미 부여가 가능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으며, 가히 한시 르네상스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또 다른 예로, 신간회 좌우합작운동의 핵심이며 식민지시기 사회주의 운동의 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꺽정』이라는 근대적 대하역사소설을 창작한 홍명희(1888-1968)는 노론 명문 집안 출신으로 한학에도 뛰어

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제법 수준 높은 한시로 자신의 서정적 내면을 그려내었다. 그가 제1차 민중대회사건 주모자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때 소론 명문 집안 출신 정인보(1893-1950)와 편지로 장편 한시를 주고받았는데, 실천적 지식인의 갈등하는 내면 풍경의 진지함이나 문학적 형상화의 수준에서 전근대시기 한시에 비해 오히려 주목할 지점들도 있다. 우리 국문학의 분과 제도를 만들어낸 이념을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이런 사회적 현상과 작품들의 역동성을 제대로 해석할 지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학이라는 전근대 유산이 근대에 바로 소멸되지도 않았고 무의미한 잔존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하나둘 나오는 틈에, 근대문학이 이식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착목한 정기인 선생의 연구서가 나왔다. 전자가 고전문학 연구자들의 반성적 태도의 산물이라면, 이 연구서는 현대문학 연구자의 반성적 태도의 산물이다. 학계가 매우 주목해야 할 작업이다.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20세기의 한문학 작품들에서 한국한문학 전통의 계승과 시대적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정기인 선생은 “한문맥”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한문 전통이 어떻게 20세기 근대 문학이 구성되는 데에 변수로 작용했는가 하는 점을 해석하려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한문맥은 사이토 마레스의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 한문맥과 근대 일본』(황호덕·임상석·류충희 역, 현실문화연구, 2010)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개념인데, 정기인 선생은 한시의 이미지와 상상력 그리고 한문 전적에 담긴 이념과 세계관 및 문화 등의 다층적 구조를 상징하여 한문맥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로 알려진 최남선(1890-1957), 근대단편소설 「무정」의 작가 이광수(1892-1950), 상징주의 시들을 번역한 김억(1895-?), 민요풍으로 알려진 「진달래꽃」의 김소월(1902-1934) 등에게 한문맥이 어떻게 전유되

어 그들의 근대문학을 만들어냈는가를 추적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시는 전근대에는 교양의 척도이며 교유의 도구이며 외교의 무기이기도 하였다. 문학의 영토와 정치의 영토 및 일상의 영토가 두루 겹치는 영역에 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한반도의 근대시는 전적으로 문학의 영토를 표방하며 정립되었다. 한시가 문학 이외의 영토에서 받은 토질의 영향이 근대시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가, 한문맥을 통해 한국 근대시의 형성을 밝히려는 정기인 선생의 연구 설계도이다. 그렇다고 정기인 선생이 이 책에서 한문맥의 영향만으로 근대시가 성립되었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서구 문학의 영향과 일본이 선취한 근대문학의 영향도 전제하고 있다. 심지어 입지(立志)라는 한문맥적 어휘가 다시 해석될 때 최남선은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의 자조(self-help) 개념의 진한 그늘 아래에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근대시는 다양한 조건 속에서 성립된 문학 장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기인 선생이 갖고 있는 학문적 설계도의 장점이다.

식민지시기 이들 문인들이 문학에서 근대를 수립하려고 노력하며 서구와 일본을 전범으로 삼았기에 20세기 후반 연구자들도 서구와 일본을 척도로 문학적 근대 수립의 노력에 집중하여 문학사를 구성하였지만, 실상 이들의 내면에는 한문맥으로 표현되는 전근대의 영향과 그로 인한 근대적 상의 왜곡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정기인 선생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근대시는 단일 기원으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중층적 원천으로부터 착종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적 문맥(구문맥), 일본적 문맥(일문맥), 국문시 전통(국맥) 등으로 기존 연구의 주목 방향을 상대화시키며, 역시 상대적 원천 중의 하나로서 한문맥을 성공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20세기 한문학 작품이 시야의 사각에 감추어져 있다가 일부 고전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조명되고 있다면, 20세기 근대문학에서 뻗어 존재하는데도 못 본 척하던 한

문맥을 정기인 선생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적정하게 설명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n개의 문명에 n개의 근대가 있는 이유는, 각각의 문명에 영향을 주는 흐름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근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준 흐름들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20세기의 자본주의적 근대라고 해서 지구 전체가 동일한 양상의 근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 내에서조차 계급에 따라 다른 근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걸 평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시각이거나 그것이 내면화된 식민지적 시각이다. 민족과 근대라는 보편 이념으로 평평한 근대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시도는, 과거와 절연된 근대의 상을 그려내었다. 소설이나 리얼리즘의 발생 시기를 올려잡으려는 내재적 발전론의 시도는, 큰 틀에서 보면 절연된 근대 문학을 전제하는 것이다. 우리도 소설이나 리얼리즘처럼 평평한 근대의 지표를 자생적으로 발전시켜 왔지만, 서구적 근대 문학의 침공으로 단절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하지만 절연된 근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문학사의 온전한 근대의 모습은 새로운 이야기로 구축되어야 한다.

딱 한 가지만 트집을 잡아 본다. 김억이 ‘사무사(思無邪)’를 전근대의 일반적 『논어』 해석인 사특(邪慝)함이 없음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은 독특한 지점이긴 한데, 김억이 사무사를 사무사(思無詐)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사특하지 않다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뜻이고, 솔직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뜻이어서 바로 일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어쨌든 김억은 이 솔직함의 개념을 사용하여 여류 한시를 번역한 『꽃다발』의 서문을 구성하였는데, 여기서 또 사대부 정실부인과 소실 및 기녀를 나누어 소실 및 기녀에게 솔직함의 정통을 부여하고 있다. 여성의 객체화라는 가부장제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이다. 정기인 선생은 이런 대목에서 대개 김억이 드러내는 현상과 김억의 의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만 전개하고 있다. 중

거에 기반한 과학적 태도로서는 손색이 없다. 그러나 그가 오해한 지점과 우리 시대의 인식에 미달하는 지점에 대해서, 일정한 비평적 언급까지 추가된다면 더욱 날카로운 논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근대시의 형성 과정이란, 과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한문맥을 타자화하였지만 다시 근대문학을 수립하기 위해 한문맥이 주체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것이 정기인 선생의 새로운 이야기의 골자이다. 근본적으로 보편 개념의 추구 없이 학문은 성립할 수는 없다. 국문학을 둘러싼 보편 개념들 또한 국문학 연구를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보편이 갖고 있는 한계 또한 끊임없이 인식되어야 한다. 시공을 아울러 보아도 문명의 보편이란 단 하나의 보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축하고 경쟁하고 소멸하는 각각의 보편들이 있었던 것이다. n개의 근대라는 개념이 또 하나의 보편을 향해 각축할 수 있는 것이고, 고전과 이어지는 근대라는 개념이 또 하나의 문학사의 보편을 향해 각축할 수 있는 것이다. 정기인 선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운 보편을 지향하며, 우리 문학사의 새로운 담론으로 주목받게 되기를 더욱 기대한다.